

Shall we turn tonight to Luke, chapter 18.

Luke tells us that Jesus now

spoke a parable to them to this end (18:1),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parable was to encourage people to pray and not to faint.

누가복음 18장을 펴 봅시다.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18:1),

바꾸어 말하면,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이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것입니다.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18:1);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so often when people come, almost fainting over the dilemma that they are facing, that they are just breathless, at the end of the road. They're desperate; they're almost beside themselves as they begin to pour out. They're just so full, they pour out all of the woes and the problems and the difficulties and all. And that release valve is popped, and it just comes out all over the place. And then you say to them, when they finally come to some kind of equilibrium, you say, "Well now, have you prayed about it?" "No, no, but we've got to do something. We can't pray." And yet, that's exactly what the Lord is saying, "We ought to pray and not to faint." You know, I have found that the Lord doesn't give needless warnings.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18:1);

재미 있는 사실은 빈번히 사람들이 그들의 직면한 문제로 거의 낙망하여 숨을 쉬지 못할 막바지에 다다른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쏟아 놓기 시작 할 때엔 거의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민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모든것으로 꽂차 있었던 것을 쏟아 놓습니다. 그 노출하는 발브가 열렸고 그것이 온 사방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이 평안을 찾았을때 물어 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기도 할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쓸데 없는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Now many times when He warns I think that they are needless. I think, "Lord, You don't need to talk to me about that. I've got that one wired, Lord. No problems there." And yet, it is in that area where the Lord has given me warning that I ultimately end up in trouble. Because I didn't listen; I didn't think I needed the warning. As I read through the scriptures, I find that those things that the Lord warned the kings about where the very things that ultimately they got in trouble for. God knows. He knows what lies down the road. And He doesn't warn us needlessly, nor does He exhort us needlessly. And in this parable, to the end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that is the area where so many people have problems. They're always fainting and not praying, just turning it around.

주께서 경고 하실 때 나는 그 경고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주님,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내게 경고하셨던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경고 하셨던 바로 그 점에서 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쓸데 없이 경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낙망하고 돌아서면서도 기도 하지 않습니다.

Now, in the parable,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of it in parallelisms because Jesus, first of all, speaks of a wicked judge. The Roman judges, or those that were appointed by the Roman government, were notoriously crooked. In fact, there's a Greek phrase that means "the judge of honor." But by just a slight change, the phrase is "the robber judge." And so it was very common. And in the classical Greek you can read often this switching of the phrase; and rather than saying "the honorable judge," they'd say "the robber judge." Because they were so notoriously wicked. They said you could buy them with a pound of beef. They were just wicked men. And they used their position. And so Jesus is talking about this kind of a judge.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예수께서 악한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사법으로 생각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들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헬라 속담에 “명예로운 재판관”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꾸어 “도둑 재판관” 이란 말도 있고 그것이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헬라 고전 문학에서 “영예로운 재판관” 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것을 바꾸어 “도둑 재판관” 이라고 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명이 높을 정도로 대단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고기 한근에 그들을

매수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종류의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 하십니다.

And He said,

There was in a city a judge, which feared not God, neither regarded man: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and she came unto him, saying, Avenge me of mine adversary. And he would not for a while: but afterward he said within himself, Though I fear not God, nor regard man (18:2-4);

It shows what kind of a person he was.

Yet because this widow troubles me, will avenge her, lest by her continual coming she wears me out (18:5).

She wearies me.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just judge said (18:6).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18:2-4);

이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 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8:5).

그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18:6).

And then He gives His lesson in prayer. Now, I said be careful that you don't get into parallelisms with this parable and think that this unjust judge represents God. That is not the case. Jesus often taught in parallels with sharp contrasts, and this is one of those parables not of parallelism, but of sharp contrast. For surely He would not put God in the light of an unconcerned, unjust, judge, unfeeling. That's the exact opposite of what He teaches us of the Father, who loves, who cares, and who is concerned. So this parable is one of contrast.

그후에 주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던것 처럼 이 비유로 병행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빈번히 완전히 대조되는것을 병행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들 중의 하나는 병행론에 맞지 않고 오히려 대조를 이룹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불의하며 인정이 없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놓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사랑 하시고 돌보시며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 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대조형의 하나입니다.

The contrast is this: if a wicked man, hard, who neither regards neither God nor man, if he can be persuaded just because of the persistency of this little widow, in sharp contrast,

Shall not God avenge his own elect, which cry unto him day and night, though he bear long with them? I tell you that he will avenge them speedily (18:7-8).

대조는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하고 굳은 사람이 이 보잘것 없는 과부의 간청으로 설득될수 있다면 그것은 현저히 대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7-8).

Now Jesus isn't really then teaching that you've got to persist in prayer and continue and continue and continue until you get your answer. He is saying that God will avenge speedily those who call unto Him. So, don't in your mind draw the parallel, "This God is like this judge, and I've got to just keep pestering Him until I get what I want." If your cause is right, if your cause is just, I believe that God is only waiting for you to open the door through prayer so that He can do what He's been wanting to do the whole time. You see, I'm convinced, from the scriptures, that God knows what I really need long before I ever know it. God knows what I'm going to be needing six months from now. God knows what I'm going to be needing five years from now.

실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응답을 얻을때까지 계속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 하시는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병행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재판관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것을 얻을때까지 괴롭혀야한다" 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는 당신의 이유가 옳고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것을 하실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필요한것을 내가 알기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는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육개월후에 내게 있어야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년후에 필요할것 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Prayer is not really informing God of my needs. Jesus said, "Your Father knows what you have need of before you ever ask Him." Yet, so often we think of prayer, we are informing God now of what my need is. "God, let me tell You what I need here. And I'm going to cue you in, Lord, so You can understand what I really need." And I'm using prayer as a means to inform God. How ridiculous! God doesn't need that I should inform Him of anything, for He knows everything. God loves me. He is my heavenly Father. His chief concern is my eternal good. Notice, eternal good, not my temporary good.

기도는 내게 필요한것을 하나님에게 알리는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기도를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것 다 아실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입니까! 하나님은 모든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 드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 된 관심은 내게 영원히 좋은것입니다. 영원히 좋은것이 당장엔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Now, there are some things that I may feel would be temporarily beneficial to me, but God knows that eternally they'd be damning to me. And so, I try to inform God of my temporal need, and all the while He knows my eternal need. Now, if I could by persistence, just by dogged persistence, by bugging God through prayer, break God down so He'll say, "Oh, answer that nut! I'm getting tired of him calling!" then I could be bringing into my life all kinds of hurtful harmful things. And God loves me too much to be dissuaded from His perfect will for my life by responding to my prayers when they are not in accordance with His eternal plan.

당장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그것들이 영원히 저주가 될른지 조차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한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을 위해 필요한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나의 완강한 고집으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오, 그 바보같은 놈, 응답해주어! 그 친구가 불러 대는것이 지겨워!"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생활에 온갖 아픔과 해로운 일들이 벌어질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일치되지 않는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 하시므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하십니다.

I want to share something with you. I don't want God to switch His plan as the result of my continued requests. I want God's perfect will for my life, and prayer is not really intended to get my will done on earth. Prayer is intended to get God's will done on earth, and so true prayer begins with the purpose of God, the plan of God, the will of God. And He makes that known to my heart, and I express it to Him in prayer. And by my expression in prayer, what I am actually doing is opening the door and giving God the opportunity to do what He's been wanting to do, what He's desiring to do, but will not do against my will. You see, God has given to you this business of free will, the power of choice. God will not violate that choice. Therefore, prayer opens the door for God to do those things that He desires to do in my life.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알려주시며 나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뜻을 거역하여 행하시지는 않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 드리는것입니다.

In the fifteenth chapter of John, that glorious chapt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ver and Christ, Jesus said, "You've not chosen Me, but I've chosen you and ordained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s. That you should bring forth fruit," cause that's that fruit-bearing chapter, "I'm the vine; you're the branches;"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so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notice, He "may," not He "shall," "He may give it to you." You see, it opens the door that God may do now what He's desiring to do. Your prayer has opened that door for God to act freely without violating your will. So,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wisest prayer any of us can ever offer to God is, "Lord, just work out Your complete perfect will in my life. Have Your way, Lord, in my life. Do for me what You want to do."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제자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 때문에 과일 맺는 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 니라,” 주목할것은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여는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의지를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행하실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내 생활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것을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I think that many times our prayers can be limiting God. We limit Him in our prayers. They're putting the boundaries and the restrictions on God. Like the children of Israel who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so we so often do that in our prayers. "Oh, Lord, I need a hundred dollars! I need it desperately, Lord. You know the bills are overdue, and I need a hundred dollars. God, please send a hundred dollars." Why don't you just say, "Lord, please send what you know I need"? Why limit Him to a hundred dollars? He may be wanting to give you a thousand. So there are sometimes when I think that being very specific is not so good.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때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사람들이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에게 제한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했던것 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 주님, \$500 이 필요합니다! 주님, 꼭 있어야 됩니다. 고지서들도 지불 시기가 지나가서 \$500 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00 만 보내주세요.” 왜 “주님, 아시는대로 제게 필요한것을 보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500 로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1,000 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도 모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좋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For years I prayed for a church of 250 people. I thought that was the ideal size, and oh, how I dreamed of pastoring a church of 250 people. I prayed for that number for years, limiting God. God had other things in mind. I didn't know what He had in mind. Oh, that we would understand how much the Father loves us.

오랫동안 250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이상적인 규모 였습니다. 그리고 250 명 되는교회에서 목회하는것이 얼마나 간절한 꿈이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만한 수의 교회를 위하여 수 년동안 기도했습니다. 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합니다.

Oh, that we would trust His wisdom in His dealing in our lives. Oh, that we could come to that place of total commitment of ourselves to Him, "Lord, You do what You want for Me. Lord, I rest in You." I'm not making any demands on God. I'm not trying to command God. I'm not trying to sit on the throne and be sovereign myself. I'm not trying to get my will done on this earth. That's not why I'm here, and that's not the purpose of prayer. It's to work in harmony with God,

to get His program accomplished on this earth. It's to link together with God and join with Him in His great program of reaching this worl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오, 우리의 삶에서 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데까지 올수있게 될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스스로 통치하려하지 않습니다. 이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여기 있는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도의 목적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조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것입니다.

“God, You will be done! Your purposes be accomplished. Use me as ever You see fit as Your instrument, Lord, to do Your work. Here I am, I'm available to You and whatever You want, Lord, for my life. Whatever You want to do in me, whatever You want to do through me, Lord, I'm available. Here I am. Your will be done.” Commitment!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목적이 달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필요한곳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내 삶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필요하실때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Now, I don't always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I am going through. I don't always understand my trials. There are times when I cry out of my distress. And yet, there is always that understood relationship that I have with God; that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Lord, Your particular working in my life at this moment, You just keep on working. Like my wife says, if I scream and yell and holler, "Don't let me have another bite of chocolate." And that's pretty much, "Lord, if I scream and yell and holler, 'Don't do anything contrary to Your will,' I don't care how much I scream, how much I holler, Lord,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That's supreme, that's paramount."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을 항상 알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으로 부르짖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가 안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것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내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는것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말하듯, 내가 소리 지르고 고탈 질러되면 “초콜렛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마치, “주님, 내가 소리 지르고 고탈치드라도, ‘당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리치고 고향을 치든 상관 마시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상입니다.”

So, Jesus is not saying that God is like this unjust judge. He's saying He's totally unlike the unjust judge. But He's illustrating by contrast. If a man who is so hardened, so callous, so crooked, that he has no regard for God or man, if he can be persuaded by the persistency of the little widow, shall not God avenge His children speedily? “Yes,” He said, “I say He will.”

But then Jesus asked an interesting question. He said,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18:8)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는것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조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할만큼 한 강박하고 무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보잘것 없는 과부에 의해 설득될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것이다.”

그러나 그후에 예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8)

We are told in Matthew's gospel, chapter 24, one of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would be the iniquity in the earth abounding, causing the love of many to wax cold. That goes along with this question. I believe that we are living in the hardest period of history to live a consistent consecrated Christian life. I don't believe that ever in history has there been more temptation placed so freely before men.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의 징조중의 하나는 세상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질문과 관련되는것입니다. 내가 믿기에는 우리는 일관적인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 앞에 오늘날 처럼 많은 유혹이 너무나 자유 스럽게 놓여진일은 역사상 없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Through the media, through the movies, through television, through magazines, we have been overexposed to sexual enticements. That area has been stimulated and aroused. And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deteriorating of the moral standards, a broad acceptance of relationships i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And I do not believe that ever in the history of man has there been such

a broad exposure and a more difficult time to really live a truly committed life to Jesus Christ. And because the iniquity in the world is abounding, the love of many is waxing cold. And the question then that Jesus asked becomes very significant, "When I return, or when the Son of man comes,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True, genuine faith and trust in His Word.

언론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극이 많고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덕 기준이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관계성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것처럼 폭넓은 노출이 있는적이 없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웠던 때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은 아주 의미있는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되고 진정한 신앙과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And he spake this parable unto certain of those which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looked down on others (18:9):

These are those people, and you've met them, that are so critical of everyone else. They are like Job said to his comforters, "Surely you are the people and wisdom is going to die with you." People who are self-righteous, they feel no need of any help in that area. And they are critical, condemning and look down on everybody else. It's interesting that Luke begins to explain to us the direction that the parables are taking. So, this parable is to those who trust in themselves, that they are righteous and despised others.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8:9):

이러한사람들은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이 그의 위로자들에게 말한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너희의 지혜가 죽을때 죽는자들 이로우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알잡아 봅니다. 재미있는것은 누가는 비유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것입니다.

And there were two men who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the one was a Pharisee, and the other was a hated publican (18:10).

The word *publican* became synonymous with *sinner*, of the rankest sort, the tax collector, the crookedest man in town.

So the Pharisees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God, I thank thee that I am not as other men are,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as that publican over there. For I fast twice every week, I give tithes of everything that I possess. And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so much as lift his eyes to heaven, but he smote on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Jesus said,] I tell you, this man, [that is, the public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that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nd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18:11-1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10).

세리란 말은 죄인과 동의어로서 대단히 부패한 사람이며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8:11-14).

I find it very difficult not to assume this pharisaic attitude when I look at our church. I am very prone to say, "Lord, I thank You that our church isn't as other churches." We don't beg and dun the people for money. And just tell how wonderful we are. Because, really, in my heart I thank God that we're not like a lot of other churches. I mean, that's just plain honest. And I think we are better....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때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교회들과 같지 않은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거나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솔찍히 말하는것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So, I have a problem with this parable. Yet, I realize my own need of God's mercy. It's not my righteousness, it's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that I have done. I don't ever come to God and say, "Now, Lord, look at what I've been doing for You. Look at the hours that I've put in this week. Look at the sacrifices

that I have made." Jesus talked to us about that last week, didn't He? When the servant comes in, the master doesn't say, "Sit down and eat." He says, "Go fix me my meal, and then after I've eaten, you can eat. After you've done all these things, just say I'm an unprofitable servant." So I never try to tell the Lord what I have done, nor come to the Lord on the basis of my commitment or what I have done, because that is a trap.

그래서 이 비유로 내게 있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일을 좀 보세요. 제가 이번주에 보낸 시간을 좀 보세요. 제가 희생한것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지난 주에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들어왔을때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난 후에 먹을찌니라. 이 모든일을 한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찌니라.”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무얼 했는가를 절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내 헌신을 기반으로 하거나 내가 행한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정이기때문입니다.

It may bring me confidence at sometimes to come to God. But then most of the time, I feel no sense going to God; I haven't done anything, or what I've done is negative. So I always come to God on the basis of His grace and His mercy towards me. Whenever I come to God it is always seeking His mercy. You see,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I never come to God and say, "Justice, God! I want justice!" I'm afraid I might get it. I come and I say, "Mercy, Lord! Mercy! God, be merciful!"

그것이 하나님께 나올때 때로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갈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행한것은 부정적인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의 은혜와 자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때마다 자비를 구합니다. 공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받게합니다. 나는 하나님앞에 와서 절대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저는 공의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건데 내가 처벌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와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For mercy is not getting what I deserve. But then I say, "Oh, God, grace!" Because that's getting what I don't deserve. So you see the fin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Mercy is not getting what's coming to you. And grace is getting what's not coming to you...God just giving to you on the basis of His love and grace towards you. You don't deserve it, but He'll do it anyhow.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And then, "Everyone that exalts himself shall be abased, but he that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오, 하나님,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정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에게 닥아오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며 은혜는 우리에게 닥아오지 않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하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다음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And so they brought unto him also infants (18:15),

We brought little Jeffrey Draper tonight.

They brought unto him also infants, that he would touch them: but when his disciples saw it, they rebuked them. But Jesus called them unto him, and he said, Allow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in no wise enter in (18:15-17).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18:15),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린 제프리 드레이퍼 (Jeffrey Draper) 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15-17).

I love to observe children. There is a beauty, there's something almost sacred and divine surrounding that little child. There's just such a purity. Sitting today at the table with some of my grandchildren, listening to them talk about the Lord, listening to them offer their prayers to God for the food and for every other item that they could think of while they're praying for the food. In fact, one even forgot the food. But their beauty and the simplicity of their opening up their hearts to God; it's just glorious. I love children. And there seems to be within a child a very keen sense of discernment.

나는 어린 아이들 관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 근처에는 아름답고 거의 거룩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순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손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주님께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동안 생각 나는 것을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음식에 관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영광

스럽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속에 대단히 예민한 분별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If I see a person that children shy away from and won't go to, I become suspicious of that person. The same with a dog. If I see a person that a dog sort of..., I get suspicious. They seem to have a good sense of judgment. And Jesus said, "Unless you receive the kingdom as a little child, you're not going to enter therein." But Jesus was always interested in the children.

만일 어린아이들이 피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을 보게되면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개가 그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판단력을 가진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 갈수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Mark tells us that when the disciples were keeping the people away from Him, bringing their children to Him, and when Jesus saw what they were doing, He was angry. He was upset. He rebuked His disciples; He was really upset with them. "Let those little children come to Me; don't forbid them." And He took them into His arms and He blessed them.

마가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려왔을때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책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것을 용납하고 금하지말라.”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들을 축복 하셨습니다.

Now there was a certain ruler and they asked him, saying, Good Mast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And Jesus said un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there is none good, except one, and that is, God.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he said, All of these have I kept from my youth up. And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said unto him, Yet you lack one thing: sell all that you have, distribute un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come and follow me. And when he heard this, he was very sorrowful: for he was very rich. And when Jesus saw how that he was very sorrowful, he sai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needle's ey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y that heard it said, Who then

can be saved? And he said, The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18:18-27).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18-27).

Now, again, let's not misunderstand Jesus. For when this young ruler came and kneeled at Him and said, "Good Mast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this age abiding life?" He's talking about a quality of life, not the quantity. A quality that he observed in Jesus. There's something eternal about the way this Man lived. His life crossed the dimensions of time; they stretched into the eternal. "What must I do that I might have this age abiding, this quality of life that You possess?" And Jesus said, "Why did you call Me good? None is good, except One, and that is God."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오해하지 맙시다. 이 젊은 관원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질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에 무언가 영원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뻗어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소유한 영원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하느냐? 하나님 한분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Now, do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Jesus is saying, "I am not God." For I think a careful observation and you'll discover He's saying just the opposite. You see, He is saying one of two things: He is saying, "I am no good," or He is saying, "I am God." So the question, "Why do you call Me good?" is to arouse and elevate the conscious level of this fellow's mind. "Look, you've called Me good. Why did you call Me good? You're looking for age abiding life. Now you call Me good. Why is it that you call Me good? You see, there is only One that is good and that is God.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그가 말씀하신바는 정 반대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것은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나는 선하지 않다” 라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는 질문이 이 사람의 양심을 일깨어 그 수준을 높이려는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알다시피 선한분은 오직 한분이며 하나님만 선한 분일제.

Why did you call Me good? Because what you see in Me, this quality that you are attracted to, this quality that you have discerned is that I am God." You remember when Peter sai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sai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h!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unto you,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as much He is saying unto this young fellow, "Look, you've had a divine revelation. Why did you call Me good? There's only One good and that is God." "That's right! Could You...?" So, He's trying to draw out now. "Hey, you're coming along, getting warm, warmer, warmer..." Pulling him in, letting him really expand this awareness.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매력을 느끼는 특성을 네가 내속에서 보고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임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한것을 기억하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한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 젊은 이에게 이 만큼 말씀하십니다, “보게, 자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왜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는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분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여보게, 자네는 잘 따라오네, 좀더 뜨겁게, 좀더,...” 그를 끌어들이고 그의 깨달음을 확장 시키려 했습니다.

Then Jesus flashes across him the six commandments in the second table of stone. Those commandments that deal with man's relationship with his fellow man, which constitutes righteousness. And as Jesus flashed across him the second table of the law, "Thou shalt not kill, commit adultery,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mother, don't steal," he said, "I have kept all of these from my youth up." Mark tells us that he asked the question, "What lack I yet?" And Jesus, when He heard these things, said unto him, "You lack one thing. Go and sell all that you have and distribute to the poor. You'll have treasure in heaven."

그러고 난후 예수께서 두번째 돌판에 새겨진 여섯째 계명을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두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은 의를 이루기위한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다룰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가는 그가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Now again, don't misread this. Is Jesus saying that his lack was poverty? No, because we could all get in easily then. Go back. "Why do you call Me good? There's only One good, that is God." Now Jesus said, "Go," and let's leave out what He said at that point, just "Go." And then He said, "Come, follow Me." Now the essential word of Christ to this young man is, "Come, follow Me." You see, your problem is, God is not at the center of your life.

다시 말하지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의 부족한것이 가난 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하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가 말했던것 “가라” 는 말만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좃으라” 고 하셨습니다. 이 젊은 이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 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것입니다.

You have another focal point upon which your life is revolving. In his case, it was money, his riches. His life was revolving around his riches. His riches were at the center of his life. And Jesus touched the thing that was at the heart of his life, and He said, "You've got the wrong God. Follow Me. Get rid of that false god. Follow Me. If you want to be perfect, get rid of those idols, get rid of those things that are standing in the way, those things that are keeping you from total commitment. Follow Me, put Me at the center of your life."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경우 에는 그의 돈, 즉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재산을 중심으로해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틀린 하나님을 가졌다. 나를 따르라. 옳지 않은 신을 없애 버려라. 나를 따르라. 만일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거든 그 우상들을 버려라. 앞 길에 서 있는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이 나를 따르려는 전폭적인 너의 말길을 막고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네 삶의 중심 (보좌) 에 모셔라.”

And so the Word of Christ would be the same to you tonight. It would be "Go," and then He would put His finger in your life at that which is hindering you from completely following Him. Maybe it'd be selling that little sports car. Or getting rid of this, getting rid of that.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가라” 는것이고 그후에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것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조그마한 스포츠 카를 파는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나 저것을 없애는것 일 수도 있습니다.

To some, it might even be dropping out of your educational pursuits. If that's become the center of your life and the chief focal point and your life is revolving around that, that's the thing He's putting His finger on and saying, "Look, you'll never find it there; you'll only find it when you follow Me. It's not that these others that cannot be added and become a part of your life, but they should not and cannot be the center part of your life. I've got to be at the center of your life. Come, follow Me."

어떤이에게는 학업을 추구하는것을 중단하는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생활의 중심이되고 초점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보라, 네가 그것을 거기에서 찾을수 없어; 그것은 네가 나를 따라올때에만 발견할수 있어.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더 첨가되어 생애의 부분이 되는것이 아니야. 내가 네 삶의 중심에 있어야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The young man went away sad. Now it is wrong to assume that he was lost. I don't know if we'll meet him in heaven or not. It may be that he was sad at the thought of what he had to do next. It could be that he went to his accountant and said, "Hey, get rid of everything, distribute it to the poor. I'll see ya later. I've got to follow a Man that I met today. Nothing else counts, but following Him." Or it could be that he went away sad, thinking, "The price is too great. Can't do it. I wish I had it, but I can't pay that price."

그 젊은 이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못했다고 여기는것은 틀렸습
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를 만날지 못만날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가 그 다음에
해야할일을 생각하여 근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의 회계사를 찾아가서 “여보게,
모든것을 처리하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나중에 보세. 나는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따라가야하네. 그를 따르는것 밖엔 중요한것이 없어.” 혹은 그가 근심하여
갔으며 생각하기를 ‘ 댓가가 너무커. 나는 그렇겐 못해. 내가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러한 값을 치룰수는 없어.”

And he had reason, then, to be sad. Jesus then sai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ugh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Riches can be such a powerful god in a person's life; they can get such a strong hold upon a person. They can possess you so quickly. The people said, "Lord, who then can be saved?" Of course, He talked about the camel going through the eye of an needle. And Jesus said, "With man, it is impossible." Luke said He said, "All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그리고 그 당시엔 그에게 근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개인의 생활에서 대단히 유력한 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굳게 잡을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당신을 신속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수 있겠나이까?” 물론, 주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없다.” 주께서 말씀하신것을 누가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수 있느니라.”

Now, I get upset today when we travel to Israel and the guides will tell you about the subgate that they call the "eye of the needle." This is a concocted story as are so many of the stories that the guides tell. They're interesting. You know, they are paid to know and so they'll tell you something, even if they don't know. Because they're expected to know. And I have looked at some of the various sites and I've had four or five explanations given to me of what caused it and all by the four or five different guides that we've had over a period of time.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 안내자가 작은 문에 대하여 말할때 그것을 “바늘의 귀” 라고 불러서 나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안내자가 들려주는 꾸며낸 많은 이야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모를찌라도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알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동안 사오명의 다른 안내자들로부터 너댓가지의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So they're not really that authoritative. There's just an awful lot of guesswork still in archaeology as to periods and times and datings and so forth. There's just an awful lot of guesswork of what that really was, and what that was intended for. And they'll tell you, "Oh, that was to do this or that." And you know, as I said, they've got to have some answer. Like the guide who was showing the minister through the cathedral in Milan, St. Ambrose Cathedral there.

그들은 정말 권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까지 고고학에는 연대나 날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짐작을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것이였는지를 알려고 많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 그것은 이것이나 저것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것 처럼 그들이 대답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안내자가 밀란에 있는 성 암브로스 성당을 을 통하여 목사를 보여주는것과 같습니다.

And he showed him this case and the skull in the case, and he was assuring the people that that was Peter's skull, that somehow it had been rescued when he was crucified and preserved and highly revered. One of the fellows spoke up and said, "Hey, we were down in the area of Rome the other day and in

another cathedral and they showed us a skull. And they said that was Peter's skull." He said, "It was smaller than this one," when he says, "Oh, yes, but that was when Peter was a boy." So, they'll have an explanation for you.

그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해골을 그 사람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은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확신 시켰습니다. 여하간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을때 그것을 구출해서 잘 보존되어 승배를받는다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 전날 우리가 로마의 어떤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갔을때 그들이 한 해골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그가 말할때 "오, 예,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소년이었을때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해줄 설명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So, they point to a small little cut in the bottom of the gate, and they'll say, "That's the needle's eye." And it is small enough, that to get through the gate, to get through this little hole, there's like a cat, things that they have in the house where the cat can come through and all. It's like that. You get down and you can squeeze and crawl through the thing. You'd never get a camel through one of those things. But they say, "Oh, there was a subgate. And at night when they close the main gate of the city, if a guy arrives at the city late, the only way he can get in...they won't open the main gate at night...so the only way you can get in is to take all of the baggage off the camel and you get him down on his haunches and you push the thing through. And with a lot of effort and a lot of work and a lot of strain, you can push him through the needle gate, or the "eye of the needle" gate. Wrong!

그래서 성문의 바닥에 찢라낸 작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늘 귀 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집안이 들락날락 할수있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당신도 엎드려 쪼구려서 엎드려 지나갈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멍으로 낙타를 결코 지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 작은 성문이 있습니다. 성의 대문을 닫을때 어떤 사람이 밤 늦게 성에 도착하면 그들이 성에 들어 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밤에는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짐을 낙타에서 내리고 앉힌 다음 등을 밀어 들어가게 하는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일과 많은 긴장으로 낙타를 바늘문 혹은 바늘귀 를 통하여 밀어 넣을수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Jesus said, "With man it's impossible."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would like to believe a lot of struggle, a lot of effort, a lot of guts and drive and determination, you can save yourself. Wrong! You can't save yourself. I don't care how much pushing and pulling and effort you make, you can't save yourself. With man, it is impossible. You can'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on your own works.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thank G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과 많은 용기와 의욕과 결심으로 자신을 구원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기고 밀고 노력을 하든지 상관 없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수있습니다.

Now Peter said, Lo, Lord, we have left all and followed thee (18:28).

We gave up our houses and homes and all.

And he said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ere is no man that has left house, or parents, or brothers, or wife, or children, for the kingdom of God's sake (18: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18:28).

우리가 집과 가정과 모든것을 버렸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18:28-29),

Now notice that: "for the kingdom of God's sake,"

Who shall not receive manifold more in this present time, and in the world to come life everlasting (18:30).

The qualifying phrase is "the kingdom of God's sake."

Then he took unto him the twelve,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we're going to Jerusalem, and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by the prophets concerning the Son of man shall be accomplished (18:31).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8:30).

수식어를 붙인 문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입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18:31)

Now they are on the final leg of their trip to Jerusalem. They're down at the Jordan River and they are now going to go on up to Jerusalem to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re the scriptures are to be fulfilled. Not the scriptures of the establishing of the kingdom as the disciples thought. Not the scriptures of sitting on the throne of David, but those scriptures that related to His being

delivered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spitefully entreated, and spit upon (18:32):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하류를 지나 성경말씀이 이루어질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한다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18:32):

Jeremiah speaks of this mockery and the spitting, the plucking of His beard.

They shall scourge him (18:33),

Isaiah tells us that in chapter 53,

and put him to death (18:33);

Isaiah 53 and Daniel 9.

and the third day he shall rise again. And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this saying was hid from them, neither knew they the things which were spoken (18:33–34).

예레미야는 그가 당할 조롱과 침 뱉음과 수염을 뽑는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18:33),

이사야가 5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일 것이니 (18:33);

이사야 53장과 다니엘서 9장이 말해 줍니다.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18:33-34).

They were blind to it. "Okay, fellows, we've got to go up to Jerusalem, that all of the scriptures concerning Me might be fulfilled." "Alright, let's get on with the kingdom!" And He then tells them what He's referring to. "I've got to be delivered to the Gentiles, I have to be mocked, spitefully entreated. I'm going to be spit upon. I'm going to be rejected, I'm going to be scourged, I'm going to be slain. But the third day I'll rise again." "Let's go to Jerusalem, set up the kingdom."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나에 관한 모든 성경이 응하리라.” “좋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자!” 그 후에 주께서 그를 가리키는 것들을 말씀하시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 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국을 세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So anxious were they. I am somehow encouraged by this though. These men that Jesus chose to be nearest to Him, these men that Jesus chose to establish the church were not spiritual giants. They were not perfect men. They did not have keen spiritual insight. They were people just like you and me. God uses ordinary people. God uses you if you'll just let Him. And so here they were, they really didn't understand what He was talking about. In fact, they were just miles apart in their thinking.

그들은 몹시 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이 사람들은 영적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을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말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상 그들의 생각은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18:35),

Now remember, He is on His way to Jerusalem. He's coming first to Jericho, about eighteen to twenty miles from Jerusalem.

It came to pass, as he was come near to Jericho, a certain blind man sat by the way side begging (18:35):

때가 이르매 (18:25),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먼저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8-20 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18:35):

Now this obviously is not the one in Mark's gospel, Bartimaeus, or the one in Matthew's gospel, or the two. One, the account gives two blind men, one tells of Bartimaeus. And this is a different account however. For in this case, Jesus is entering Jericho and the other two blind men He met when He was leaving Jericho.

So as He was on His way to Jericho, "a certain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wayside begging."

이것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없는것으로, 바디메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 혹은 두사람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두 소경이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서는 주께서 여리고를 떠나실때 두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리고로 가실때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And hearing the multitude pass by, he asked what it meant (18:36).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He couldn't see.

And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18:37).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18:36)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는 볼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18:37)

Now he had heard of Jesus. I think that everyone who has some kind of a physical disability is attune to possible cures. Unfortunately, because of this deep desire to be cured, in the present day they often become victims of evil charlatans who promise them cures. And it's amazing how a person who is desperate will hope for anything.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willing to take advantage of that hope and give to them a false hope. But somehow he had heard of Jesus of Nazareth; the name registered.

그가 예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누구든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치료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행히도 이 낮고자하는 간절한 마음때문에 오늘날 빈번히 이 치유를 약속하는 악한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됩니다. 놀라운것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에든지 희망을 걸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에 모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거짓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하간 그 소경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들었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so he began to cry aloud, saying, Jesus (18:38),

And used the Messianic title,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n those that went before [those that were around him] rebuked him, that he should hold his peace: but he cried so much the more (18:38-39),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18:38)

그리고 메시야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이 저를 꾸짖어 잡잡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18:38-39),

Using now just the Messianic titl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And Jesus stood, and commanded him to be brought unto him: and when he was come near, he asked him, What do you want that I should do for you? And he said, Lord, that I may receive my sight. And Jesus said unto him, Receive thy sight: thy faith hath saved thee. And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of the people, when they saw it, gave praise to God (18:39-43).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8:39-43).

Notice that. Jesus said,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wi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f people are constantly coming up and praising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person and "you're so marvelous, and you're so this and that..." then you better take a quick self examination and find out how you're letting your light shine--evidently in the wrong way, because it's attracting attention to you. It's bringing praises to you.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wi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Jesus was somehow doing it that way. So when they saw this blind man able to see,

following Jesus in the path, they glorified God. They praised God. They gave praise unto God.

그것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와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며 “당신은 너무 놀랍고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하거든 급히 당신 자신을 점검해보고 당신이 어떻게 빛을 발하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칭찬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수있게 되었을때, 길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것입니다.